조달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11. 27.(금)

조달청,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로 공공공사 디지털 전환 가속화

- ‘KIBIM 2026 국제 심포지엄’ 참가… 건설정보모델링(BIM) 활용 확대 발표

조달청(청장 백승보)**은** 27일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**한국BIM학회**(KIBIM) **주관 ‘KIBIM 2026 국제 심포지엄’에 참가**했다고 밝혔다. 이날 **조달청 신동헌 혁신행정담당관은 ‘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사 조달정책 방향’을 주제로 발표**하며, BIM 활용 확대 방향을 설명했다.

* BIM(Building Information Modeling): 건축물을 3차원으로 구현한 모델에 자재, 공사비 등의 정보를 담아 설계·시공·유지관리 과정에서 활용하는 기술

신 과장은 “BIM은 드론, 사물인터넷(IoT), 건설로봇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기술을 연결하여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”이라며, “앞으로 **공공 분야의 BIM 활용을 확대하고 정보 입력 기준을 표준화하여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**하겠다”고 말했다.

조달청은 2016년부터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BIM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. 또한 BIM 설계 품질 고도화와 건설업계의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, **턴키 등 기술형 입찰 공사에는 스마트건설기술 평가를 도입하여 운영**하고 있다.

*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: 시설공사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사업기획, 설계관리, 시공감독 및 사후관리 등 건설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

앞으로 **조달청은** 정부의 공공공사 BIM 전면 도입 정책에 발맞춰 **BIM이 단순한 3차원 모델 작성에 그치지 않고 설계·시공·유지관리 전 과정의 건설정보를 연계하는 데 활용**될 수 있도록 **공공공사 조달체계를 발전**시켜 나갈 방침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신동헌	(042-724-7082)
		담당자	서기관	박선옥	(042-724-707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